

서양은 왜 17세기 교역 휩쓴 인삼의 역사를 숨겨 왔나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인삼의 세계사

설혜심 지음



“인삼의 세계사”는 의학학의 성패가 의학적인 효능뿐만 아니라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좌우된다는 명제를 선명하게 증명하는 사례다. 과학이라고 불리는 제반 영역에도 문화적인 구별 짓기가 작동하며, 그런 구별 짓기의 심성은 이른바 ‘객관적인 실험 결과’로 쉽게 교정되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다. 오늘날 거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제대로 균형 잡힌 세계관을 만들기 위해 인삼 같은 상품의 ‘사회적 삶’을 ‘역사적 삶’과 ‘현재적-상업적 효과’를 넘어 인문사화학, 특히 역사적 관점에서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본문 중에서)

다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커피, 사탕수수, 면화와 더불어 17세기 교역 네트워크 중심을 이룬 세계상품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몸보신 식물로 인식돼 있다. 바로 인삼이다. 삼계탕, 인삼주 등

식과 술에까지 건강 기능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비단 인삼의 인기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 아시아와 유럽,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인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고려인삼이 유럽에 상륙해 서양인들을 사로잡은 것이 1617년이었다. 흑자는 ‘최초의 한류 상품’으로 인삼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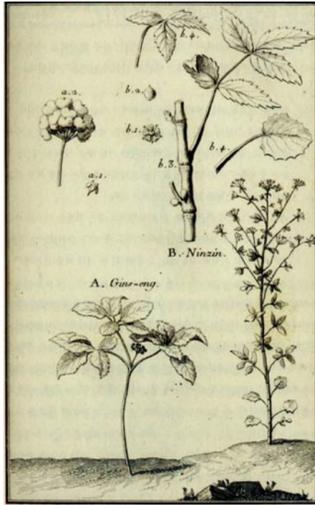
17세기 동서양 교역을 휩쓴 슈퍼스타 인삼을 조명한 책이 나왔다. 설혜심 연세대 사학과 교수가 펴낸 ‘인삼의 세계사’는 개성에서 런던, 매사추세츠까지 시공간을 넘나드는 인삼의 여정을 조명했다.

주경철 서울대 서양학과 교수는 추천사에서 “한 서양사학자의 집요하고 치밀한 연구 덕분에 세계 최초로 인삼의 세계사적 의미와 서구 학계의 편향에 반격을 가하는 탁월한 저작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평했다.

책은 각종 서양 문헌 속 인삼의 기록을 찾아내 세계사적 시각을 견지한다. 단순한 인삼의 역사가 아닌 서양과 인삼의 불편한 관계를 아우른다. 인삼의 존재를 복원하기 위한 열정은 역동적이면서도 다채롭다.

“의학 논고부터 약전, 동인도회사 보고서, 경제학 논고, 식물학서, 지리지, 여행기, 박물지, 신문기사, 서신, 사전, 소설, 시, 광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가 동원된 것은 그 때문이다.”

저자는 인삼이 동아시아 중심부와 유럽-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주변부의 이중구조 속에서 유통됐다고 본다. 특히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화기삼이 발견되면서 인삼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신생 국가 미국은 화기삼을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문제는 상품 장악력이었다.



프랑스 화학자 조프루아와 식물학자 드 가르스의 '79가지 식물에 대한 설명과 잠정, 용도'에 소개된 진생(인삼-아래)과 닌진(당근), 18세기 이르러 유럽에서 전 문화된 직업이 된 약사가 여성의 맥박을 재는 장면(오른쪽). <휴머니스트 제공>

“수요를 결정하고 품질의 등급을 매기고 가격을 책정하는 모든 일이 수입국에 중국에 달려 있었다... 내다팔기에 급급한 물건이었던 인삼은 미국에서 내수용 상품이 될 수 없었다. 미국인들은 인삼을 제대로 경험하고 사용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서구 의학은 자신들의 지식체계에 인삼을 끌어들이기보다 효능을 폄하했다. 유효성분을 추출하지 못한 데다 약성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

같은 양상은 인삼을 ‘중국의 전유물’로 규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오늘날 서구 나라들이 인삼을 재배하지만 이전에는 ‘열등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인식이 드리워져 있다.

세계적으로 인삼 연구는 1950년대 들어 본격화됐다. 더욱이 90% 이상이 효능을 밝히는 데 집중된 나머지 인문사회학적 연구는 미흡했다.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출신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도 동아시아 생산 인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저자의 목적은 간명하다. 세계사적 관점에서 인삼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 있다. 그와 동시에 오늘의 비대칭적 인삼 연구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지다. 또한 이를 통해 인삼이 서양 역사에서 은폐돼 왔던 배경을 서구 중심의 세계론에서 찾아내, 그 편향성에 ‘일침’을 가하는 데 있다.

<휴머니스트·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직 멀었다는 말

권여선 지음

제47회 동인문학상 수상작이자 ‘소설가들이 뽑은 올해의 소설’ 1위에 선정된 권여선 작가의 ‘아직 멀었다는 말’이 출간됐다.

지난 2016년 ‘안녕 주정병아’ 이후 4년 만에 펴낸 이번 소설집에는 모두 8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권여선 특유의 예민한 촉수와 리듬, 문체의 미묘한 힘이 압권”이라는 평과 더불어 제19회 이효석문학상을 수상한 ‘모르는 영역’도 만날 수 있다.

지금까지 권여선 작품은 문학평론가 소이현의 ‘한국문학의 질적 성장’을 이끈 대표적 작가 가운데 하나라는 평처럼 동료 작가와 문단의 관심을 받았다. 이번 작품집 제목 ‘아직 멀었다는 말’은 단편 ‘손톱’ 속의 한 문장 “문득 소회는 세 처럼 목을 빼고 어디까지 왔나 확인하듯 장벽의 거리를 내려다본다. 할머니가 아흐 어 하 소리를 내며 하품을 한다. 그건 아직 멀었다 소회야, 하는 말 같다”에서 연유한다.

매장에서 일을 하는 소회는 어느 날 박스를 들어올리다 굽은 고정쇠가 손톱을 뚫는 바람에 큰 상처를 입는다. 살이 찢기고 손톱이 뒤로 썩었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 대출금을 포함해 육담방 월세 등이 있어 한푼이라도 돈을 아껴야 하는 처지다.

그런 소회에게 유일한 사치는 아침 통근버스에서 보게 되는 햇빛이다. “찌르는 듯 따스하고 무심하면서도 공평한” 햇빛처럼 소회의 하루는 거칠지만, 그 빛을 통해 온기를 느낀다. 또한 할머니의 “조심해야지”라는 말은 위로라 단정하지 아닌 그만큼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의미다.

김애란 소설가는 권여선 작품에 대해 “단순한 명망이 아니라 빛을 쫓아서 어둠을 쫓아서 보여주는 작가를 보면 소설이 주는 위로란 따뜻함이 아니라 정확함에서 오는 건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다”고 평했다.

<문학동네·1만3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습정

정민 지음

세상이 어수선한 지금 거짓 정보, 가짜 뉴스가 판을 친다. 사람들은 저마다 듣기보다 말하기에 열중이어서 세상은 갈수록 시끄럽고 혼란스럽다. 이때 필요한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 한문학 문헌들에 담긴 전통의 가치를 현대에 되살려온 정민 한양대 교수는 ‘습정(習靜)’을 권한다. 침묵과 고요를 익히라는 의미다.

이번에 정민 교수가 펴낸 ‘습정(習靜)’은 소음의 시대를 꿰뚫는 간명한 글들 담았다. 인간 내면에 대한 성찰, 사회에 대한 비판, 풍부한 식견과 정치한 언어가 담담한 사유 속에 깃들여 있다.

100편의 글은 크게 각각의 소주제로 나눠 묶여 있다. 먼저 ‘마음의 소식’은 세상의 파고에 흔들리지 말 것을 강조한다. 일에 쫓겨 아등바등 살아가는 정작 자신의 마음 한 자락 추스를 수 없다는 얘기다.

“행실이 깨끗한 사람은 저자에 들어가서도 문을 닫아걸고, 행실이 탁한 사람은 문을 닫아걸고서도 저자로 들어간다.”

위 말은 풍어양의 ‘목계용담’에 나오는 말이다. 바깥으로 쏠리는 마음을 거두어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요지다.

다음의 ‘공부의 자세’에서는 말을 아껴야 안에 고이는 것이 있다는 ‘득구불토(得句不吐)’, 또한 여러 차례 붓질이 쌓여야 깊은 생김다는 ‘유천입봉(由淺入深)’도 강조한다.

정 교수는 “이래저래라 할 것 없이, 마음 간수가 어느 때보다 절박하고 절실하다. 생각의 중심추를 잘 잡아야 한다. 날마다 조금씩 쌓아가는 것들의 소중함에 눈을 뜨고, 진실의 목소리에 더 낮게 귀를 기울이고 싶다”고 말한다.

<김영사·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니체와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양승권 지음

기원전 369년에 태어난 장자와 19세기 말 활동했던 니체 사이에는 2000년이 넘는 시간과 동서양이라는 공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의 철학은 평범하면서 비슷하다. 남의 호흡에 끌려 다니지 말고 자기 호흡에 맞춰 자신에 충실하게 살라는 관점이 그렇다.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방식대로’ 뚜렷하게 살라는 것이다.

두 사상가의 철학을 주제별로 엮고 해설한 ‘니체와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가 출간됐다.

대구대학교 성산교양대학(S-LAC) 창조융합학부 교수로 재직중인 저자 양승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니체와 장자의 철학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책은 두 철학자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깨달음을 찾는 시도”라고 전한다.

책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그리고 제1장 삶과 죽음, 제2장 자기실현, 제3장 인간과 지성, 제4장 허무주의와 무(無) 등으로 구성됐다. 저자는 니체와 장자의 말을 빌려 세상이 혼란하고 나 자신조차 믿을 수 없게 되더라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 것을 이야기한다.

또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의 길은 이 길이다. 당신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이며 부와 승진, 일의 효율 혹은 정치적 지향 등 세상의 가치는 개인들의 주장이기에 남들의 이목을 신경쓰며 살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삶에 집중하라는 의미다.

이와 함께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 미래에 대한 불안에 떨며 살지 말고 ‘지금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라고 충고한다.

<페이퍼로드·1만58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